

경북도 '술 문화축제' 성황... "전통주 산업 부흥시킬 것"

안동서 '경북 술 문화축제' 개최
23개 시군 전통주·특산주 홍보
주인주색 가양주 전시체험 열려

경북도가 올해 처음 '경북 술 문화 축제'를 안동에서 개최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해 지난 2~3일 안동 월영교 일원에서 열린 이 축제는 도내 23개 시군의 전통주와 특산주를 홍보하고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술문화 이벤트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추진됐다.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형동 국회의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대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 23개 전통주 화합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축제기간에는 종가의 가양주, 가양주와 어울리는 상차림, 무형문화재 전통주와 사기장(술병, 술잔 등),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공예작가의 다양한 형태의 주병과 주전자 전시하는 '주인주색(主人酒色) 가양주 전시체



지난 2일 안동 월영교에서 '2022 경북 술문화 축제'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

합 및 명인전통주 전'이 열렸다.

또 전통주 명인과 함께 하는 경북의 술 이야기 토크쇼, 요리연구가 겸 칼럼니스트 박찬일 셰프와 함께 하는 월영교 달빛잔잔, 다양한 전통주를 소개·시음·체험을 하는 전통주 브랜드데이 등 MZ세대 맞춤형 다양한 콘텐츠가 이어졌다.

내방가사 전승보존회, 하회별신굿 탈놀이, 경북 사투리 아지매송, 도립 국악단의 대북공연, 독도사랑스포츠 공연단의 태권도 시범공연 등 다양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이와 함께 국악컴퍼니 민음, 채의

진, 봉덕브라더스의 버스킹 공연, 술 관련 에피소드 등 술이 들어간 노래부르기(취중진담 가요제) 등 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프로그램이 관객에게 풍성한 구경거리를 선사했다.

안동 월영교 일원에서는 백두대간 인문캠프, 경북여행리포터단 팸투어, 안동 호반관광나들이길 걷기행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상품 체험부스, 푸드트럭 등도 함께 운영돼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이 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 나갈 계획

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전통주 면허건수는 전국 4위, 매출로는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전통주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많은 전통주산업 기반과 전통주 관련 문화자산을 보유한 지역이며 전통주 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전통주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지속해서 발굴해 전통주 산업을 부흥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부산시의회-BNK부산은행 경제위기 극복 동행 프로젝트

부산시, 부산시의회, BNK부산은행이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2일 오전 시청에서 부산시의회, BNK부산은행과 3교(고금리·고물가·고환율)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 동행(同行)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경제위기 극복 동행(同行)프로젝트' 협약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BNK부산은행은 협력하여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총 7조3,38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항은 ▲서민금융 지원 2조 6,200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3조 9,250억 원 ▲재기 지원 7,930억 원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거제시 달빛타워 산도달도 카페 개소

거제시는 거제면 산달도 달빛타워에서 산달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산도달도' 카페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

'산도달도'카페 운영은 가고파라산달도영 어조합법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가고파라산달도영 어조합법인은 2019년부터 산달도 분교편선(1박3식 숙박프로그램), 캠핑장, 낚시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섬 주민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합원인 산달도 주민들더 개개인이 출자해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제성장·약자에 복지 경남의 핵심 비전·철학"

박완수 경남지사 '영남미래포럼'
"방위·조선 등 활성화 시킬 것"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1일 진행된 '2022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해 지역균형성장에 대해 "지방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도정의 비전과 운영 철학을 밝혔다. 영남권 5개 시 도지사가 패널로 참여해 민선8기 단체별 비전과 철학, 지역별 현안 질문에 대해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박도지사는 도정의 비전과 철학을 답변하는 자리에서 "활기찬 경남은 경제성장을, 행복한 경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가 경남의 핵심"이라며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은 원전산업과 함께 방위, 조선, 항공우주산업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심해

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경남만의 복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 17개 시도 중 개인소득은 상위권, 복지는 중간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부산항 신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을 미국의 NASA처럼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도지사는 "항공우주 관련 기관을 모두 유치해서 현장에 집약되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우주 관련 전문가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등 정주여건을 잘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곧 자율주행차량을 넘어 도심항공교통(UAM) 시대가 올 것인데 항공산업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준비를 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광주시, 22곳에 스마트횡단보도 구축

국토부서 사업비 20억 지원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서구 금호지구 대인근 횡단보도 등 지역 내 22곳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 국토교통부가 8억 원을 지원하고, 광주시가 12억 원을 부담한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과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카메라·센서 등을 활용한 음성안내 보조장치·보행신호 자동연장·차량 검지(검사해 알아냄)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고창군, 지속가능 농업소득 안정화 총력

쌀값안정·장려금 확대 검토 등
농업현안 대책마련 긴급회의 열어

쌀 값 하락 등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선 8기 고창군이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에 총력을 펼친다.

고창군은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지역농업 현안 대책마련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농업 피해 최소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고창군은 신속한 시장격리로 쌀값 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논타작물 장려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 쌀 값 하락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비율도 15%→20%로 높인다. 전폭적인 지원으로 내년 농업분야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49억3500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농업소득안정화 대책 긴급회의의 모습. /고창군

특히 농촌인력 부족 문제 관련, 청년농업인과 승계농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추석맞이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행사 등도 추진된다.

또 군비지원 사업 6개 분야(중소형농기계, 원예특작생산단지 지원,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 하우스작물재배용 수정별지원, 고추건조기 지원, 농산물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의 보조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농기계 면세유나 비료 인상을 지원해 농작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한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통영시, 폐현수막 활용 우산 300개 제작

통영시가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300여개를 분청 및 읍면동에 시책 홍보용으로 배부하고 시민 무료 대여서비스를 실시했다.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은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폐현수막 재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천만 원(국비 50%)을 들여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행정용 폐현수막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이에 통영시는 전국 최초로 폐현수막을 방수처리하여 우산을 제작함으로써 기존의 모래주머니, 포대와 같이 제한적인 재활용 방식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폐현수막의 활용도를 높였고, 나아가 시책홍보 및 시민대여용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통영(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1@

화순군 부동산 거래 신고 리플릿 배부

화순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 군청 행복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리플릿과 포스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 중개수수료 등 군민이 알아야 할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했다.

리플릿에는 ▲법인 주택거래 신고 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 사항 ▲부동산 가격예측 및 담합 금지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의무·절차·방법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이 담겼다. 화순군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